

## 景觀概念語 使用方向 設定(1)

—松江, 蘆溪, 孤山의 시가에 나타나는 ‘景’을 中心으로—

鄭夏光<sup>1)</sup>

嶺南大學校 大學院 造景學科

### A Study on the Use of “Concept” or the Word “Kyoung”

Jung, Ha-Kwang

Dep.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 formation and classify the diverse concepts which related to Kyoung(景) in the Classical Korean Poems(Chong, Chol(鄭澈, 1536-1593), Pak, Inno(朴仁老, 1561-1642), Yun Sondo(尹善道, 1587-1671) on the Yi dynasty period and to construct the direction of the use of that concepts in the future.

The classical poems must of necessity reflect in some way the tempers of the time in which it was written whether or not it proves unfit to what we think of a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histo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The type of landscape concept was 9 types and had the following frequencies in order : Kyoung(景)(3), Pung-Kyoung(風景)(2), Kyoung-Chi(景致)(2), Yeo-Kyoung(麗景), Cheong-Kyoung(清景), Jin-Kyoung(眞景)(1), Mo-Kyoung(暮景)(1), Ka-Kyoung(佳景)(1), Kyoung-Mul(景物). Types of landscape concepts in Yi dynasty period were classified into 9 according to the many characteristics ; personal situations, faith, religion, confucianism in the specific time of Yi dynasty.

The most popular type of landscape concepts in general was Kyoung(景). The word, “Pung-Kyoung(風景)” was used in expressing personal thoughts and feelings in one’s recollection in terms of landscape elements. The word, “Mo-Kyoung(暮景)” was used in expressing specific time and the dejection in one’s heart in that time. The words, “Yeo-Kyoung(麗景)” and “Ka-Kyoung(佳景)” were used in expressing beautiful landscape. The word, “Cheong-Kyoung(清景)” was used in expressing the clear landscape and pureness from sin and innocence of the man. The word, “Jin-Kyoung(眞景)” was used in expressing the religion and the social characteristics. The word, “Kyoung-Chi(景致)” was used in expressing thoughts and feelings on the beautiful landscape. The word, “Kyoung-Mul(景物)” was used in expressing the landscape elements.

The nine concepts had a great deal to do with defining and perpetuating a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place and landscape elements, and a society’s character in the Yi dynasty period.

註 1) 嶺南大學校 造景學科 博士課程

## I. 序 論

언어란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하는 상징체계로서, 그것은 글자(또는 소리)를 가지고 심리적 상상을 記號化하여 규칙에 따라 구사하는 유일한 도구이다. (金鳳柱, 1988) 그리고 인간은 모든 것들에 그 이름을 부여하여 의사소통을 시작한 인류사의 시초부터 기호를 가장 필수적인 표현-전달방법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언어화(verbalization)를 동물과 구별짓는 유일한 문화적 성취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外部環境으로 부터 감각기관을 통해 겪은 아름다운 경험을 보존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비록 이러한 言語(單語)가 경험의 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視覺對象과 經驗사이에서 해석(interpretation)과 先入觀(preconception)의 막(screen) 역할을 하지만 경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그동안 “景觀”이란 용어가 地理學, 造景學 등의 학문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앞의 여러 학문에서 그 存在價値를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專門用語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景觀”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고, 그 용어의 사용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景觀용어의 정립과 해석이 일본 혹은 西歐의 景觀解釋을 그대로 수용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을 우리의 文化的 特性을 고려하지 않은채 우리의 景觀개념 사고방식에 그대로 적용하여 景觀개념어의 모호한 사용에 따른 혼란과 그 의미표현에서의 혼동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 우리 문화의 特殊性에 바탕을 둔 “景觀”과 관련된 개념어들이 있었을 것이며, (2) 그러한 개념어들은 文章構成에 있어서 一貫性있고 規則的으로 사용되어 졌을 것이며, (3) 他文化의 개념규정을 우리 언어의 개념과 接木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4) “景觀”과 관련된 개념을 정립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景觀”개념의 使用方向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假定下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景觀과 관련된 용어를 우리문화의 특수성에 바

탕을 두어 分析하고, 相互比較를 통해 景觀과 관련된 개념들의 일관성 없고, 규칙성 없는 현재의 사용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景觀이 지니는 文化的, 社會的 상황 및 개인적 특성을 통해 景觀의 本質을 밝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 II. 研究方法

### 1. 研究方法 模索

본 연구는 앞에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古文獻을 통해 (1) 고문헌에 나타난 “景觀”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抽出하여, (2) 그러한 개념들의 使用頻度(出現回數)를 조사하고, (3) 그러한 개념들이 문장구성과 문장내용상 어떠한 관계를 이루면서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하고, (4) 景觀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 문장을 개념분류학(Roget, 1959; Carroll, 1964a; 金鳳柱, 1988)에 기초하여 16개의 개념(價値, 認識, 知覺, 感覺, 靜的, 動的, 基數, 序數, 關係, 場所, 植物, 動物, 山, 水, 自然現象, 人工)를 통해 분석하고, (5) “景觀”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6) “景觀”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올바르게 정의하여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景觀”개념의 사용방향을 설정한다.

### 2. 研究對象의 文獻 및 時間的 範圍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575-1675년으로 이 시기는 李朝時代의 중기이며, 연구대상자는 이조시대의 전반적인 시기동안에 시가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松江 鄭澈, 蘆溪 朴仁老, 孤山 尹善道를 대상인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작품은 松江의 작품 중에서는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 「星山別曲」, 「將眞酒辭」, 그리고 「短歌」를 蘆溪의 작품 중에서는 「太平詞」, 「紗提曲」, 「陋巷詞」, 「早紅柿歌」, 「船上歎」, 「獨樂堂」, 「嶺南歌」, 「蘆溪歌」 그리고 「短歌」를 高山의 작품 중에서는 「山中新曲」, 「山中續新曲」, 「古琴詠」, 「贈伴琴」, 「初筵

曲, 「罷宴曲」, 「漁夫四時詞」, 「夢天謠」, 「雨後謠」를 연구대상의 문헌으로 삼았다. 앞의 작품 중에서 작품연대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진 작품과 년도를 보면 [表 1]과 같다.

[表-1] 作品의 製作年代

|      | 松江         | 蘆溪  | 孤山       |
|------|------------|-----|----------|
| 1575 |            |     |          |
| 1581 | 關東別曲       |     |          |
| 1582 | 星山別曲       |     |          |
| 1589 | 思美人曲, 續美人曲 |     |          |
| 1598 |            | 太平詞 |          |
| 1600 |            |     |          |
| 1605 |            | 船上歎 |          |
| 1611 |            | 莎提曲 |          |
| 1618 |            |     | 遺懷謠, 雨後謠 |
| 1625 |            |     |          |
| 1631 |            | 嶺南歌 |          |
| 1632 |            | 蘆溪歌 |          |
| 1642 |            |     | 山中新曲     |
| 1645 |            |     | 山中續新曲    |
| 1650 |            |     |          |
| 1651 |            |     | 漁父四時詞    |
| 1652 |            |     | 夢天謠      |
| 1675 |            |     |          |

### III. 研究史

현재까지의 “景觀”과 관련된 개념어의 사용을 보면, 첫번째는 “景觀”과 類似概念間的 혼용 혹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張三植(1981)은 “景觀”을 (1) 風景, (2) 景色으로, 李崇寧(1976)은 (1) 風景, (2) 현실의 모양으로 풀이하고 있다. 研究文獻上的 개념정의에 있어서도 李順熾(1977)은 “景觀이란 景致, 景光, 景色, 景物, 景概, 風景, 風致 등 다양한 유사용어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했으며, 金輝榮(1984)은 “景觀과 關聯이 깊은 用語들에는 環境, 自然, 風景, 場所의 개념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同一한 意味는 아니지만 오늘날 서로 같은 의미를 共有하고 있으며, 특히 풍경과 경관은 자주 바뀌어 사용되기도 하고 이들 모두 自然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고 했으며, 朴石熙(1988)는 “人間의 눈에 비치는 自然의 모습을 風景, 風致, 山水, 景致, 景觀 등으로 부르고 있다”라

고 했다.

두번째는 “景觀”용어가 日本語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朴種和(1977)는 “景觀은 日本의 三好傳士가 독일의 landschaft를 日譯하면서 최초로 사용하였다”라고 하였다.

세번째는 영어 landscape를 “景觀”으로, 영어 scenery를 경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朴種和(1977)는 “영어의 scenery에 해당하는 것으로, 風景, 風光, 風物, 風色; 景色, 景致, 景趣, 風趣; 佳景, 絕景, 名勝, 山水, 山川, 風月 등이 있다”고 했으며, 黃琪源(1989)은 “風景, 風致, 景觀, 造景 모두는 영어의 landscape이라는 명사의 번역어”라고 했으며, 催祀秀(1989)는 “경관은 영어의 land와 scape의 합성어인 landscape이다”라고 했다.

이와같이 “景觀”이라는 용어를 독일어 “landschaft”를 번역한 일본어 “景觀”이라는 명사를 차용하여 사용하여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어 “landscape”를 日譯되어 이미 사용된 “景觀”으로 번역하여 아무런 비판도, 아무런 비교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며, 또 “景觀”, “風景”, “景致”, “造景” 등으로도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여러 상황에 따라 달리 의미를 부여하고 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景觀” 개념의 의미 표현을 살펴보면, 첫번째 空間概念과 質의概念으로 의미를 표현한 경향을 볼 수 있다. 張三植(1981)은 “景觀”을 “어떤 지역의 特色있는 風景, 눈에 보이는 風色”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헌상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金輝榮(1984)은 “景觀은 보이는 物理的 對象으로 뿐만아니라 보이지 않는 意味로서도 把握되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任勝彬(1988)은 “景觀은 원래 내륙 自然風景을 意味하였으나 요즘은 內陸, 海洋을 구분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自然, 人工을 구분하지 않고 시야에 전개되는 풍경을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였으며, 黃琪源(1989)은 “景觀(landscape)은 人間과 生物의 실제생활이 營爲되는 環境의 實體가 아니라, 環境으로 부터 心理的으로 離脱한 觀者가 일정한 距離를 두면서 正觀할 경우에 形成되는 ‘이미지’라는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것 이상인 것으로 判斷되며, 경관은 환경에 있어 物理的이고 生物學的인 要素 뿐만 아니라 人間行爲에 의해 기인되어진 變化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각 문헌상에 나타난 경관의 표현을 보면 경관이 갖는 人間의 思想 및 感情의 표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多義의임을 알 수 있다. 또 경관에 대한 각 문헌상의 強調內容을 비교하면 [表 2]와 같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景觀關聯 概念의 混用과 景觀개념의 多義性이 생겨나게 된 원인에 대하여 金輝榮(1984)은 “景觀이라는 개념은 時代와 場所에 따라 그 의미가 變하기도 하며, 類似概念과 混亂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인간이 대상을 어떻게 認識하느냐 하는 人間과 환경과의 意味關係에서 把握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며, 崔杞秀(1989)는 “景觀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즉 知覺하는 사람마다의 經驗, 感情, 지난날의 記憶, 想像, 현재 상황이나 意圖 등에 따라 아주 다른 방법으로 景觀요소나 장소를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金英大(1987)는 “景觀이란 結果的으로 人間과 自然의 어울림을 보여주는 現象의 하나이므로, 여러가지 景觀의 구분이 있듯이, 景觀에 대한 解釋 또한 多樣하다. 이는 곧 보여지는 現象을 知覺하여 認知하는 人間의 價値體系의 多樣함에서도 起因하는 바, 여러가지 측면에서 景觀을 읽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黃琪源(1989)은 “景觀概念의 形成過程이 經驗의일뿐 아니라, 특히 歷史的으로 長期間 동안 서로 다른 文化圈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던 名詞가 文化의 進과와 相互 수용과정에서 交叉, 습합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混用과 명확한 概念定義가 이루어지지 않은 좀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原因은 각 個人에게 있어서 혹은 社會集團에 있어서 경관이 갖게 되는 개념을 規則的이면서도 一貫되게 사용할 만한 理論的 根據를 찾지 못하여 그 개념에 대한 社會的(집단적) 合意를 形成하지 못한데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他文化(일본, 미국, 독일)의 개념사용과 의미표현을 無意識的, 無條件的으로 받아들여 한국문화가 갖는 경관에 대한 개념의 사용과 意味表現과의 比較考察이

없었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 IV. 概念으로서의 景觀

언어는 단순한 命名體系, 즉 모든 事物에 이름을 붙이는 手段도 아니고, 하나의 單語가 한가지 뜻만을 갖는 體系도 아니다. 언어는 소리 또는 글자를 가지고 記號화하여 事物의 類를 概念化 한 후, 그 개념들을 이용하여 人間의 思想 및 感情을 表現하는 유일한 象徵體系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란 個個人的 精神的 構成物 뿐만 아니라 同一한 언어를 驅使하는 社會적 集團人들이 받아들인 單語들 및 기타의 記號들의 의미를 가르키며, 이러한 개념은 多樣한 事物에서 그 共通된 性質에 의하여 하나의 統一된 思想으로 결합시킨 觀念, 즉 知覺과 記憶과 想像에 나타나는 個別的 表象에서 共通된 屬性을 抽象하여 결합시킨 하나의 心的 統一體로 우리 인간이 思惟, 批判에 의하여 서로 다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特殊한 性質(屬性)들을 무시하고 각기 다른 대상들로부터 共通된 속성만을 취하여 그것을 言語化(記號化)하면 一般性和 普遍性을 갖는 개념이 되며, 單語 또는 語句가 된다.

인간의 言語創造能力에는 두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抽象의 과정을 통해 概念이 生成된다는 觀念의 反復을 위한 ‘抽象의 能力’이며, 나머지 하나는 觀念의 規則的 合成 使用, 즉 規則的 反復을 招來하는 ‘概念 結合의 能力’이다.

景觀이라는 단어를 예로들어 보더라도 첫번째의 ‘추상의 능력’은 앞에서 설명된 景觀개념의 多樣性과 多義性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景觀이라는 단어의 요소는 單一한 知覺이나, 특정한 물체에 대한 觀念이 아니며, 수 천의 別個의 經驗(群集性, 不定性, 應用性)을 안고 있지만 몇 개의 대상으로부터 개별적인 차이, 즉 다른 속성을 무시하고 同一한 屬性(精髓性, 普遍性)만을 종합하는 精神的 行爲 또는 과정인 추상의 結果로 생기는 것으로, 모든 指示對象들로부터 일반화되어 사용된 개념의 記號(代表性, 固定性)이다. 우리는 意識上 그리고 思考內容上 具體的이고 個別的인 모든 景觀 중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공통점을 갖는 경우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일관성 있게, 규칙적으로 사

융합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경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어, 우리의 言語 生活에는 막대한 利益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간의 言語 創造 能力의 나머지 하나는 개념의 規則的 合成 使用, 즉 ‘概念結合의 能力’으로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想念을 表現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기호화된 개념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보통 이러한 規則을 文法(文章構成)이라고 한다. 그리고 합성에는 合成性의 原理(principle of compositionality)가 적용되는데 이는 複合表現의 指示(的 意味)는 그 표현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指示(的 意味)들의 總和로 이루어진다. 概念과 概念을 合成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두개 이상의 개념을 連結詞 없이 合成하는 方法(複合語, 合成語, 語群)으로, 예를들면 ‘自十然十景十觀’이 ‘自然景觀’으로, ‘人工十景觀’이 ‘人工景觀’으로 즉, ‘自然景觀’의 지시적 의미는 그 표현을 구성하는 부분인 ‘自然’과 ‘景觀’의 부분들의 지시적 의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합성법은 개념과 개념을 합성하는데 연결사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主部(subject)+述部(predicate)形式(外心構造)이요, 다른 하나는 修飾部(modifier)+主部(head)形式(內心構造)이다. 이 형식은 두 개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때문에 언어에 따라서는 서로가 前述될 수도, 그 語順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모든 文章은 外心型 아니면, 內心型으로 이루어지거나, 외심형 및 내심형의 合成, 組合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景觀은 어떤 地域의 特色있는 風景이다’, ‘景觀은 書籍이나 法令集과 같이 과거를 기록해 놓은 문서로서 公共의 印象이 그려진 일종의 痕迹이다’, ‘景觀은 視野에 전개되는 風景을 일컫는다’, 그리고 ‘景觀은 視覺으로 보여지는 것이상으로 物理的이고, 生物學的인 요소 뿐만 아니라 人間行爲에 의해 기인되어진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다’ 등으로 표현되는 구조는 外心構造이며, ‘象徴으로서의 景’, ‘實體로서의 景’, ‘視覺構成으로서의 都市景觀’, ‘場所創造로서의 都市景觀’, ‘正觀으로서의 景觀’, 그리고 ‘背景으로서의 景觀’ 등은 內心構造이다.

## V. 李朝 詩歌文學에서 나타난 景觀概念語

### 1. 人物과 作品의 背景

#### 松江 鄭澈(1536-1593)

松江은 李朝 中宗 31년(1536년)에 나서, 거의 일생을 정치계에 보냈으나, 불행히도 당쟁의 세상에 나서, 자기도 그 당쟁중에 휩쓸려 들어가, 서인 두목으로 지목되어 몇 번이나 그 화를 입고 말았다. 송강도 다른 많은 작가와 마찬가지로 학자이고, 정치가이지, 순순한 작가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 韓國 詩歌作家는 몇몇을 내놓고는 대개가 一時的, 道樂의 作家이었고, 그 작품의 質과 量으로 보아 별로 신통한 것이 없으나, 松江만은 비교적 성의를 가지고 가작을 했고, 또 우리 詩歌史에 찬연한 빛을 발휘하고, 엄연한 존재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으로 오늘날 남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松江歌詞〉에 실려 있는 長歌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 「星山別曲」, 「將進酒辭」와 「訓民歌」를 합한 단가 77수와 새로 발견된 7수를 합한 84수인데 그 제작년대를 살펴보면, 「關東別曲」은 관동풍경을 작가 자신이 친히 답사하여 지은 것으로, 강원도 觀察使로 내려 갔던 庚辰年, 즉 그가 45세 때의 著作이라 하겠고, 「思美人曲」 및 「續美人曲」은 丁戌年間的 作이라 推斷된다. 그가 50세 즉 乙酉年에는 당쟁의 결과로써 드디어 兩司의 論斥을 입어, 약 4년간 高陽 新院, 昌平 兩地에서 왕래하며 세사에 불평도 품고 隱道生活을 한 시대라, 己丑年 다시 조정에 소환될 때까지의 그의 일생중 가장 沈鬱한 때(宣祖 21년 戊子年인 53세때)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星山別曲」은 창평에 있는 山인 성산의 풍경을 서술한 것이며, 金成遠이 구축한 接霞堂과 息影亭에서 林石川, 鄭松江, 金棲霞, 高霽峰들이 朝夕으로 학문을 강론하면서, 林泉 사이에 優遊하던 생활속에, 특히 金成遠을 위해서 지은 것이며, 동시에 松江 25세(明宗 15년, 金成遠 36세) 때 이룩된 것이다. 「將進酒辭」一編은 전연 그 著作年代를 알 길이 없으나, 현재 남은 長歌 數篇은 45세에서 54세에 이르는 10년간에 제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단가에 대하여 보면, 「訓民歌」

16수만 그의 강원도 監司時(宣祖 13년, 45세 때)의 作인 것이고, 이 외에도 확실히 그 때 作이라 볼 만한 것이 1수 있고, 그가 黨爭의 희생으로, 高陽 新院에 은거하였을 때 作이라 보이는 3수가 있고, 또 辛巳, 乙酉 兩年 어느 해 조정에서 물러나와 天의 一方에서 美人을 사모하는 6수가 있다. 「訓民歌」 16수와 9수를 합하여 77수 중 25수가 역시 45세에서 54세 때에 저작되었으리라 할 수 있다. 과연 이 시대는 그의 生涯 중 정치가로서는 비참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사생활은 가장 閑暇한 시대라 할 수 있어 著作 心理를 자극한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침체하였고 不遇한 시대라 하겠다.

#### 蘆溪 朴仁老(1561-1642)

蘆溪는 明宗 16년 辛酉年(1561년) 永陽(永川郡 北安面) 道川里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詩의 才幹이 상당했으며, 순박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산야에 놀며, 戴勝(뺨꾸기)을 몇 삼고 大自然의 품속에 안겨 풍부한 시상에 정서를 가다듬으며 평민적이면서 悠悠한 생활 속에서 자랐다. 宣祖 2년 4월 壬辰亂이 일어나자(그의 나이 31세 때) 붓을 던지고 戰場에 뛰어 들었고, 戊戌年(1598년 38세 때) 장차 태평시대가 오리라는 노래-太平歌-를 지었으며, 大亂도 한갓 지나간 暴風雨처럼 끝나고 나니, 국가의 文을 숭상하는 本色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데, 公은 잠깐 동안 邊守가 되어 읍을 다니다가 시국이 또한 크게 변한지라, 스스로 느낀 바 있어 田野로 물러가 進取의 뜻이 없이 自適하였다. 그리하여 晩年에는 오로지 蘆洲水石의 勝景을 사랑하여 집을 짓고 寓居하면서 讀書默想으로 세월을 보내었다. 그의 詩歌에 대한 재능과 애호의 정은 남다르게 뛰어나서, 우리 나라에서는 드물게 보는 歌客의 風이 있다.

그의 일생을 놓고 보면 前半生은 一介의 武夫에 지나지 않더니, 後半生은 讀書修行의 儒冠이요, 歌客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歌作이 본격적으로 진보한 것은 벼슬을 물러나 山林에 隱退하여 讀書三昧에 耽하게 된 40 이후인 듯하다. 그가 外物에 脱略하고 風流客으로서 悠悠自適한 것은 光海君 10년(1618) 50세 때이다.

蘆溪의 작품은 3권 2책으로 된 木版(여기에는

光武 8년(1904) 甲辰의 것인 光武版本을 대상으로 한다)의 <蘆溪集>에 실려 있다. '歌'라 하여 長歌에 속하는 「太平詞」, 「莎提曲」, 「陋巷詞」, 「早红柿歌」, 「船上歎」, 「獨樂堂」, 「嶺南歌」, 「蘆溪歌」 등이 순서대로 문집 제 3권에 수록되어 있다. 오늘 그의 남은 「太平詞」는 38세 때, 「莎提曲」은 51세 때, 「船上歎」은 45세 때의 작이고, 「獨樂堂」과 「陋巷詞」는 晩年 漢陰에게 從遊하고 晦齋의 유촉을 往尋하였을 때의 작이며, 「嶺南歌」는 乙亥年에 慶南監司 李謹元의 善政을 읊은 것이니 翁의 75세 때이고, 「蘆溪歌」는 76세 때의 作이다. 그리고 단가 67수(大東風雅 所載分을 넣으면 68수)를 제작년대를 살펴보면, 그의 문집에 60수나 수록되었는데, 41세 때의 작 「早红柿歌」, 59세 때의 작 「辛酉秋與鄭寒岡浴于蔚山椒井」을 비롯하여, 道川里의 景物을 읊은 「立巖」이하 대개 또한 晩年の 作이다.

#### 孤山 尹善道(1587-1671)

孤山 尹善道는 宣祖 20년(萬曆 15년 丁亥)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山寺에 가서 학문연구에 독실한 바도 있으며, 光海 4년 公이 26세 때 進士에 급제하였다. 그런데, 光海 政亂時로서 일부 朝臣들은 暗君을 싸들고 권세를 독선하는 가운데 孤山의 나이 30세 때(丙辰年, 1616)에 李爾瞻의 專權 亂政의 모양이며, 議政 朴承宗과 柳希奮(王后兄)의 忘君 負國의 죄를 上疏의 문제로 慶源으로 流配당하였다. 이때부터 따뜻한 가정에서 世波를 모르고 자란 孤山은 人世의 狂瀾을 타고, 謫居, 出仕, 逃避의 三巴生活를 보내게 될 운명의 서막이 열렸던 것이다. 癸亥 3월(1623년, 37세 때) 仁祖反正이 되어 公도 풀리었다. 仁祖 14년 역사적으로 유명한 丙子胡亂(1636)이 일어났을 때, 公은 海南에 머물고 있었으나, 이 變을 듣고 곧 鄉吏子弟와 家業數百을 모아 晝夜로 배를 타고 江都로 떠났으나 벌써 江都가 함락당하고 말았으며, 다시 海南으로 돌아와 南漢으로 가려고 하였더니, 海上에서 이미 城下의 和議가 정해지고, 大駕는 還都하셨다 들리니 애국의 열정에 불타는 公은 이러한 恥辱의 報道를 듣고는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길로 耽羅에 들어가, 다시는 이 세상의 하늘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배를 그 쪽으로 돌려 갔으나, 도중에 甫吉島(현 莞島郡 蘆花面에 속함)를 지남에 峯巒이 秀麗하고 洞이 깊숙

하므로, 公이 말하기를 여기는 산들이 둘러 있어 바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맑고, 泉石이 絶勝하니, 참으로 物外의 佳境이라 하여 드디어 이곳을 芙蓉洞이라 이름하고 格紫峯 밑에 집을 지어 樂書齋라 편을 걸고 여생을 마칠곳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그의 도피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동기는 丙子胡亂의 치욕을 당하여 大義를 세우기 위함이고, 자기를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의 惡慄한 毀謗에 견디지 못하였던데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남은 그의 작품으로는 「遺懷謠」, 「雨後謠」, 「山中新曲」, 「山中續新曲」, 「夢天謠」 등 합하여 35수와 「漁父四時詞」 40수 도합 75수인데, 「遺懷謠」 5수 「雨後謠」 1수는 公의 32세 때 戊午年(光海君 10년)에 李爾瞻 사건으로 경원에 유배당하였을 때의 작품이고, 「山中新曲」 18수는 公의 56세 때(仁祖 20년) 壬午年 盈德配所에서 돌아와서 聞簾洞, 金鎖洞에서 起臥하며 泉石을 耽樂하던 때 지은 것이다. 「山中續新曲」 2수 및 기타 6수는 公의 59세 때(仁祖 23년) 乙酉年에 金鎖洞에서 지은 작품이고, 「漁父四時詞」 40수는 公의 65세 때(孝宗 2년) 辛卯년에 孝宗大王의 特召를 받아 京師에 올라왔다가 여러번 歸南을 疏請하여 罷하고 돌아와 芙蓉洞에서 지은 것이고, 「夢天謠」 3수는 公의 66세 때(孝宗 3년) 壬辰년에 서울에 와서 孤山別野에 臥病하여 지은 작품이다.

그런데 孤山의 詩歌生活이 시작되고 또 經營된 것은, 洪宇遠이 「謚狀」에서 “丙子년 후에는 다시는 당세에 뜻이 없어 人事를 끊고, 산과 바다를 찾

아 泉石의 뛰어난 곳을 가려 사는데, 시냇물을 끌어 나무를 심고, 그 위에 亭子를 세워 山水의 樂을 이에 붙였다. 琴笛과 歌舞를 두어 귀한 곡조와 조용한 노래를 익히게 하여, 때때로 이것을 듣고 감상하여 써, 그 회포를 이에 부치고 그 답답한 심정을 폈다. 그리고 또 「山中新曲」과 「漁父詞」를 지어 그의 뜻을 나타내었다”라고 한것을 보면 이른바 丙子 이후 塵世의 樂을 얻지 못하고, 山間水邊에 그 뜻을 求해 自然과 相浮相沈하던 때인 듯하다.

2. 作品內容 分析

松江, 蘆溪, 孤山, 이 三者의 長歌(歌辭)의 內容을 分類해 보면 [表 3]과 같으며, (1) 山水自然을 노래한 것으로 松江의 「關東別曲」과 「星山別曲」, 노계의 「莎提曲」과 「蘆溪歌」, 그리고 고산의 「漁父四時詞」 등이 있으며, (2) 憂國戀君을 노래한 것으로는 松江의 「思美人曲」과 「續美人曲」 등이 있으며, (3) 戰爭과 平和를 노래한 것으로는 蘆溪의 「太平詞」와 「船上歎」 등이 있으며, (4) 安貧樂道를 노래한 것으로는 노계의 「陋巷詞」 등이 있으며, (5) 先賢을 追慕하여 노래한 것으로는 노계의 「獨樂堂」과 「嶺南歌」 등이 있으며, (6) 人間無常을 노래한 것으로는 송강의 「將進酒辭」 등이 있다.

송강의 長歌는 憂國戀君과 山水自然의 내용이 많고, 그 다음이 人間無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계의 長歌에서는 山水自然, 戰爭과 平和, 그리고 先賢追慕의 내용이 많고, 그 다음은 安貧樂道

(表-3) 長歌의 內容上 分析

|     |       | 山水自然 | 憂國戀君 | 戰爭과 平和 | 安貧樂道 | 先賢樂道 | 人間無常 |
|-----|-------|------|------|--------|------|------|------|
| 松江  | 關東別曲  | 0    |      |        |      |      |      |
|     | 星山別曲  | 0    |      |        |      |      |      |
|     | 思美人曲  |      | 0    |        |      |      |      |
|     | 續美人曲  |      | 0    |        |      |      |      |
|     | 將進酒辭  |      |      |        |      |      | 0    |
| 蘆溪  | 莎提曲   | 0    |      |        |      |      |      |
|     | 蘆溪歌   | 0    |      |        |      |      |      |
|     | 太平詞   |      |      | 0      |      |      |      |
|     | 船上歎   |      |      | 0      |      |      |      |
|     | 陋巷詞   |      |      |        | 0    |      |      |
|     | 獨樂堂   |      |      |        |      | 0    |      |
| 嶺南歌 |       |      |      |        | 0    |      |      |
| 孤山  | 漁父四時詞 | 0    |      |        |      |      |      |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산의 長歌는 山水自然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三者의 短歌의 내용을 보면 [表 4]와 같으며, 송강은 短歌篇 첫머리에 “父義慈母”, “君臣”, “兄弟恭”, “子孝”, “夫婦有恩”, “男女有別”, “子弟有學”, “鄉閭有禮”, “長幼有序”, “朋友有信”, “親戚相救”, “隣里相助”, “無作盜賊”, “無學賭博, 無好爭訟”, “班白者不負戴於道路” 등 厚倫厚風의 諸條目的 내용인 16수의 「訓民歌」를 들고, 다음에 諸내용에 걸친 61수의 노래가 있고, 또 「聖恩歌」, 「棲霞堂碧梧歌」 등 새로이 발견된 7수의 短歌가 있어 도합 84수의 短歌가 현재로서는 전한다.

다음 고산의 短歌에 보면 「漁父四時詞」를 제외한 노래로 일상생활의 興趣와 주위의 자연경관을 노래한 「山中新曲」 18수와 「山中續新曲」 2수 및 기타 「古琴詠」, 「贈伴琴」, 「初筵曲」, 「罷宴曲」 등 6수와 꿈속에 天上 白京에 가 보았다는 「夢天謠」 3수, 配所에서 君主와 父母를 思慕한 「遣懷謠」, 5수, 優愁生活에서 비가 개인 뒤의 가쁜한 기분을 읊은 「雨後謠」 1수, 도합 35수 時調가 있다.

송강의 短歌는 慨歎이 가장 많고, 다음에 戀君, 그 다음에 飲酒, 懷古, 閑興, 教訓, 忠義, 景物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나머지는 友愛, 夫婦, 男女, 勉學, 尊長, 朋友, 相助, 勸農, 戀君, 慨歎, 彈琴, 孝道, 人事, 哀願, 諷刺, 無常, 友誼, 道學, 慕賢, 思親, 忠孝, 安貧, 守分, 感恩, 酒德, 愛國 등의 내용을 품고 있다. 여기서 飲酒, 곧 술에 관한 노래를 많이 읊게 된 것은 天生 嗜酒癖이 있던 송강인지라 당연한 일이라 하겠거니와, 관계에서 물러나와 善意한 野人의 생활을 하며 山野에 파묻혀 閑逸한 생활을 할 때, 飲酒 閑情을 펴 보고자 閑興을 노래하고, 山水 自然의 景物을 노래하게 되었을 것이니, 閑興과 景物의 노래는 사실은 같은 내용의 것으로 산수자연을 사랑하고 自然의 美를 발견한 詩情에서 우러나온 作品들이다.

노제는 景物을 읊은 시조가 제일 많은데, 山水自然과 名勝古蹟의 景物을 노래하면서도 항상 名句의 결론은 道學的인 사상으로 歸一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山水와 自然景物을 노래한 점은 송강과 동일한 점이 있는데 景物과 閑興을 내용으로 한 작품수는 송강보다도 오히려 많은 것이다. 역시 자연의 美를 사랑하였지만 각 句마다 道學思想이 짙어

있고, 慕賢의 노래가 많다는 것도 이러한 思想에서이다.

고산의 短歌는 景物을 읊은 것과 閑興을 노래한 것이 단연 많지만 그것은 노제와 같은 道學的인 내용이 아니라 多年間 配所生活, 逃避 隱遁生活에서 산수의 자연미를 그대로 발견하여 순수한 詩, 예술적인 詩를 창조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率直하고도 平易하게 그려낸 예술적 香氣 풍기는 작품들이다.

[表-4] 短歌의 內容上 分類

|    | 松江(84首) | 蘆溪(67首) | 孤山(35首) |
|----|---------|---------|---------|
| 孝道 | 2       | 7       |         |
| 忠義 | 4       | 2       |         |
| 友愛 | 1       | 5       |         |
| 夫婦 | 1       | 5       |         |
| 男女 | 1       |         |         |
| 勉學 | 1       |         |         |
| 教訓 | 5       | 5       |         |
| 尊長 | 2       |         |         |
| 朋友 | 1       | 2       |         |
| 相助 | 2       |         |         |
| 勸農 | 1       |         |         |
| 懷古 | 6       |         |         |
| 戀君 | 12      | 2       | 1       |
| 慨歎 | 15      | 1       | 2       |
| 飲酒 | 10      |         |         |
| 閑興 | 5       | 6       | 7       |
| 彈琴 | 2       |         | 2       |
| 人事 | 2       |         |         |
| 哀願 | 1       |         | 1       |
| 諷刺 | 2       |         | 2       |
| 景物 | 3       | 24      | 8       |
| 無常 | 1       |         |         |
| 寓意 | 2       | 1       | 3       |
| 道學 | 1       |         |         |
| 慕賢 | 1       | 3       |         |
| 思親 |         | 2       | 1       |
| 忠孝 |         | 1       | 1       |
| 安貧 |         | 1       |         |
| 守分 |         |         | 4       |
| 感恩 |         |         | 1       |
| 酒德 |         |         | 1       |
| 愛國 |         |         | 1       |

### 3. 思想의 比較

三者의 사상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면 [表 5]와 같다. 松江 鄭澈의 작품을 통하여 보면 〈思美人曲〉, 〈續美人曲〉을 위시하여 〈關東別曲〉, 短歌에 까지도 愛國愛君의 정성이 주옥같은 그 詩歌 속에 빛나고, 〈訓民歌〉 등에서 孝道友愛며 人倫道德을 강조하고 愛民思想이 농후하며, 〈關東別曲〉, 〈星山別曲〉, 短歌 등에서 그가 山水間 自然美를 발견하고 자연을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술을 좋아하며, 풍류의 소질이 많았음을 엿볼 수 있다.

「關東別曲」은 關東山水를 遊覽하게 되자, 春川, 鐵原, 淮陽 등지를 거쳐 金剛山으로 들어가 그 절묘한 아름다운 景物을 노래한 것으로, 송강이 自然愛思想을 엿볼 수 있으며, 산수를 즐기면서도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하여 임금님의 거룩한 恩惠를 잊지 않고 있다. 鄭松江은 왕명을 받든 巡相답게 충군 애민사상을 드러내 보이면서 巡行 곳곳에서 그런 생각을 거듭 되풀이해 보여 준다. “관동팔백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고 노래한 것에서는 강원도 관찰사라는 의직을 맡겨 牧民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신 것을 성은이 망극하다고 한 것이니, 그의 애민충군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 “회양 옛 이름이 마추어 가틀시고 급장유 풍채를 고쳐 아니 볼 것인가?” 한 데에서는 중국의 한 무제 때 회양태수로 좌천되어서도 애민 善政을 베풀었던 長孺와 같은 善治者가 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와 같은 유학적 충군 애민사상은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다. 本曲에서 自然愛思想과 各處에 나오는 愛君思想과 아울러 특이한 것은 仙語를 많이 써서 송강이 어느 정도 神仙思想이 濃厚함을 알 수 있다. 本曲에 나타난 仙語를 대충 들어 보아도 “仙鶴이 사기 치니”, “醉仙을 빚기 시러”, “四仙은 어디 가니”, “四仙은 기 뉘러니”, “詩仙은 어디 가고”, “仙槎를 띄워 내어”, “仙人을 츄르려”, “流霞酒 7득 부어”, “仙山 東海”, “黃庭經一字” 등 많은 神仙, 또는 道敎의 人語句를 발견할 수 있다.

「星山別曲」은 星山麓畔에 있는 당시의 풍유인 金成遠이卜築한 棲霞堂, 息影亭을 중심으로 四時景物의 변화와 주인의 풍류를 辭說한 것인데, 역시

산수자연을 읊은 것으로 宦路에서 失意 退去하여 자연의 美를 찾고 자연의 現象에 깊숙히 파고 들어가,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詩興이 융숭 음친 송강의 山水癖을 이 曲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星山別曲」에서도 「關東別曲」에서와 같은 仙語를 찾아 볼 수 있어 송강의 神仙思想을 엿볼 수 있다. “仙間이라”, “桃源은 여기로다 武陵은 어디 메오”, “太乙真人”, “蘇仙赤壁”, “謫仙이 현수홀샤”, “이골의 眞仙이라”등이 그것이다. 송강 정철은 尊華事大思想에 빠져 자기 주체 의식이 거의 없던 당시의 조선 儒家 士大夫들과는 달리 시와 술을 좋아하며, 風流好事를 숭상하던 道仙思想에 깊이 빠져 있었던 듯하다. 송강이 본 자연도 대부분이 도선적 낙토만으로 일관되어 있다. 중국 송나라의, 隱逸仙者 임보에다가 자기를 비유했는가 하면, 스스로를 上界의 참 신선으로 비유하고, 거듭거듭 仙語를 되풀이 사용하여 자신이 속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蘆溪 朴仁老의 사상을 엿보면 安貧樂道하는 道學思想과 愛國至誠에 넘치는 忠孝思想과 山水名勝을 즐기는 자연애사상을 들 수 있다. 龍津江 莎堤의 勝景을 가사체로 노래한 것이 〈莎堤曲〉이고, 경주 玉山의 晦齋를 찾아가 선현의 慕情과 아울러 그곳 주위의 자연미를 읊은 것이 〈獨樂堂〉이고, 蘆溪谷의 勝景을 說盡한 것이 〈蘆溪歌〉이오, 鄉里 道川里的 周圍景物을 노래한 것이 〈立巖〉二十九首이다.

「莎堤曲」은 노계가 漢陰 李德馨의 靜養處인 용진에 있는 지명에서 곡명을 빌어, 그가 51세 때 漢陰을 위하여 代作한 것으로, 龍津江 莎堤의 勝景을 서술하여 그間에 逍遙自適하는 漢陰의 風貌를 그린 내용이다. 勝景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自然美를 탐구하는 그의 자연애사상이 스며 있고, 인간 한음의 풍모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儒學道學者로서의 그의 사상이 깃들고 있다. 그는 산수자연을 노래하면서도 忠孝思想을 잊지 않았고, 유학자로서의 공통적인 慕華復古思想, 慕賢思想을 항상 나타내고 있다.

「蘆溪歌」는 노계가 晩年에 蘆溪에 隱居하면서, 그곳 勝景을 說盡하여 그에 混入하는 자기의 情懷를 읊은 것인데, 노계의 자연애와 物外生活을 可히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는 자연을 취미하고, 世間名利를 뜯구름같이 보고, 無思無慮 物外心만 품고 있었지만, 자연산수를 즐기고 노래하는 가운데도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愛國一念을 잊지 않았고, 慕華思想에 젖은 復古思想을 忘却하지는 않았다.

孤山 尹善道の 사상을 보면 <初筵曲>, <罷宴曲>, <遺懷謠> 등에서 愛國精神과 忠孝心을 그리고 <山中新曲>, <山中續新曲> 같은 곡명을 보아서도 그의 자연애사상을 짐작할 수 있겠고 자연을 많이 읊은 노래 가운데도 水, 石, 松, 竹, 月을 상대로 한 <五友歌>며, 春夏秋冬 四時節의 <漁父四時詞> 등에서 그의 자연애사상을 엿볼 수 있다.

孤山의 「漁父四時詞」는 고산이 벼슬을 그만두고 退鄉하여 芙蓉洞에 들어가 泉石과 벗하여 한가한 생활을 하면서 지은 노래인데, 어부의 閑寂淸逸한 생활을 사모하며 避世高踏하는 생각을 읊은 것이다. 想像的으로 지은 李賢輔의 「漁父歌」와는 判異하게 다른데, 고산의 「漁父四時歌」는 어부의 生涯를 직접 目擊하고 어부의 避世高踏의인 생활을 그 환경인 자연 속에서 파괴 들어가며 자연애와 더불어 그의 생활을 憧憬하면서 그린 작품이다. 작품 가운데 仙佛의인 語句를 볼 수 있다. “桃源이 갖잡도다”, “仙界니인가 佛界니인가” 등이 발견되나 송강과 같은 神仙思想이 靈出되지는 않았고, 오직 漁父生活의 憧憬과 自然愛만을 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投影되어 있는 사상의 하나가 참세계를 찾거나, 理想世界를 그리워하는 심진 낙토의식이다. (崔康賢, 1982) 이러한 낙토사상은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엮어지는데 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의 위에 이상향을 구상하는 종교적인 現世救濟思想과 淨土來世觀으로서의 願望時間이고, 다른 하나는 地理的空間 위에 평면적으로 想定된 別世界, 비인간계의 異郷사상으로서의 願望空間이다. (安永壽延, 1971 : 金錫夏, 1973) 대부분의 작품들이 원망시간적 永生不滅, 來世安寧觀과 願望空間的 仙境, 별세계의 낙토관이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복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종교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우리 선인들이 남긴 관유가사 속에는 유가사상을 비롯한 불교, 道仙사상이 뒤섞여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 4. 詩歌作品에 나타난 景觀概念語 分析

松江의 작품에 나타난 景觀概念語를 살펴보면, 송강의 詩歌作品에는 松江歌詞에 실려 있는 長歌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 「星山別曲」, 「將眞酒辭」와 「訓民歌」를 합한 단가 77수와 새로 발견된 7수를 합한 84수 등이 있으나, 景觀에 대한 개념어(용어)가 나타난 작품은 「關東別曲」, 「星山別曲」, 短歌(52) 등이며, 「關東別曲」에서는 동해안을 보고 느낀 것을 적은 부분(外, 海金剛) 중에서 제 18 단에 ‘風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나며, 仙間 같은 息影亭의 자연환경과 林泉 사이에 優游하던 생활 속에서 거기를 드나드는 주인의 모양과 기상을 읊을 것을 내용으로 「星山別曲」의 전체 중에서 제 2 단에 ‘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나며, 단가 52번에 ‘暮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蘆溪의 작품에 나타난 景觀概念語를 살펴보면, 노계의 長歌 7수가 「太平詞」, 「莎堤曲」, 「陋巷詞」, 「早紅柿歌」, 「船上歎」, 「獨樂堂」, 「嶺南歌」, 「蘆溪歌」 등의 순서대로 문집 제 3 권에 수록되어 있으나, 경관에 대한 용어가 나타난 작품은 「莎堤曲」, 「獨樂堂」, 「蘆溪歌」 등이며, 龍盡江 莎堤의 勝景을 서술하여 그 간에 漢陰의 逍遙自適하는 모양을 그린 「莎堤曲」 중에서 제 5 단에 ‘麗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나며 제 6 단에는 ‘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나며, 晦齊의 유축을 여기 찾아 가서 그곳 周圍形勝과 先賢을 思慕하는 간절한 情을 읊은 「獨樂堂」에서는 제 3 단과 제 7 단에 ‘景致’라는 용어가

[表-5] 作品에 나타난 思想

|         | 松江   |      | 蘆溪   |     | 蘆山    |
|---------|------|------|------|-----|-------|
|         | 關東別曲 | 星山別曲 | 莎堤別曲 | 蘆溪歌 | 漁父四時詞 |
| 神仙思想    | 0    | 0    |      |     | 0     |
| 仙佛思想    |      |      |      |     | 0     |
| 自然愛思想   | 0    | 0    | 0    | 0   |       |
| 慕華復古思想  |      |      | 0    | 0   |       |
| 慕賢思想    |      |      | 0    |     |       |
| 戀君思想    | 0    |      |      |     |       |
| 忠孝思想    |      |      | 0    |     |       |
| 避世高踏의思想 |      |      |      |     | 0     |

[表-6] 景觀關聯用語가 出現하는 作品 및 出現回數

|    | 松江   |      |      | 蘆溪  |     |     | 孤山    |
|----|------|------|------|-----|-----|-----|-------|
|    | 關東別曲 | 星山別曲 | 短歌52 | 莎堤曲 | 獨樂堂 | 蘆溪歌 | 漁父四時詞 |
| 景  |      | 1    |      | 1   |     |     | 1     |
| 風景 | 1    |      |      |     | 1   |     |       |
| 暮景 |      |      | 1    |     |     |     |       |
| 麗景 |      |      |      | 1   | 1   |     |       |
| 清景 |      |      |      |     | 1   | 1   |       |
| 眞景 |      |      |      |     | 1   |     |       |
| 佳景 |      |      |      |     |     | 1   |       |
| 景致 |      |      |      |     | 2   |     |       |
| 景物 |      |      |      |     |     |     | 1     |

각각 1회씩 나타나며, 제 6 단에서는 ‘清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나며, 제 7 단에서는 ‘風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나며, 제 10 단에서는 ‘眞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나며, 翁의 隱居地인 蘆溪의 勝景을 說盡하여 그에 混入하는 자기의 情懷를 읊은 「蘆溪歌」의 제 5 단에서는 ‘清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나며, 제 6 단에서는 ‘佳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孤山 尹善道の 詩歌作品에 나타난 景觀概念語를 살펴보면, 그의 작품으로는 「遺懷謠」, 「雨後謠」, 「山中新曲」, 「山中續新曲」, 「夢天謠」 등 합하여 35수와 「漁父四時詞」 40수 도합 75수가 있으나, 그 중에서 景觀에 대한 용어가 나타나는 작품은 芙蓉洞에 들어가 泉石과 벗하여 閑寂한 生活을 하면서 지은 「漁父四時詞」로 秋詞(三) 부분에 ‘景’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나며, 冬詞(四) 부분에서는 ‘景物’이라는 용어가 1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앞의 景觀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을 정리해 보면 [表 6]과 같은데, ‘景’(3회), ‘風景’(2회), ‘麗景’(2회), ‘清景’(2회), ‘景致’(2회), ‘暮景’(1회), ‘眞景’(1회), ‘佳景’(1회), 그리고 ‘景物’(1회)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景觀 관련용어의 사용을 보면 ‘景’이라는 한 단어로 된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風景’, ‘麗景’, ‘清景’의 순이다. 三者의 景觀 關聯用語의 사용을 보면 蘆溪가 9회이며, 松江은 3회, 그리고 孤山은 2회로 단연 蘆溪가 多樣하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蘆溪가 순박한 농촌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詩의 才幹이 있었고, 山野에 놀며, 大自然의 품속에 안겨 풍부한 詩想에 情

緒를 가다듬으며 平民의이면서 유유한 생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되며, 어렸을 때의 이러한 생활이 그의 詩歌作品에 많은 影響을 끼쳤을 것이다.

5. 作品의 內容과 文章構造上의 景觀概念語 分析

景觀概念語가 나오는 작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松江의 「關東別曲」, 「星山別曲」, 「短歌」 52, 蘆溪의 「莎堤曲」, 「獨樂堂」, 「蘆溪歌」, 그리고 고산의 「漁父四時詞」이다. 이러한 작품내에서도 景觀關聯用語가 나타나는 部分과 內容을 다시 細分하여 보면 松江의 作品 중에서 戀君의 情을 담고 있는 「關東別曲」의 제 18 단, 主人의 風流와 氣상을 담고 있는 「星山別曲」의 제 2 단, 그리고 옛 景주의 쓸쓸한 모습을 그린 「短歌」 52, 노계의 作品 中에서는 春興을 노래한 「莎堤曲」의 제 5 단과 秋興을 노래한 「莎堤曲」의 제 6 단, 晦齊의 모습을 그리는 「獨樂堂」의 제 3 단, 晦齊선생의 높은 德과 속인들의 慨歎을 그린 「獨樂堂」의 제 6 단, 晦齊선생의 有德을 그린 「獨樂堂」의 제 7 단, 晦齊선생의 學德을 그린 「獨樂堂」의 제 10 단, 그리고 孤山의 作品 中에서는 뜻을 담고 떠나려는 장면을 그린 「漁父四時詞」의 秋詞 中에서 제 3 단과 눈개인 뒤에 바다 부근의 모습을 그린 「漁父四時詞」의 冬詞 中에서 제 4 단 등이 있다.

關東別曲

第 18 段

眞진珠珠館 竹筠西서樓루 五오十십川천 모든(느린)물이

太太白嶽山山 그림재를 東東海海로 다다가니  
 출하리 漢漢江江의 木木窟窟의 다하고저  
 王왕程程당이 有有限한 風風景景이 못슬미니  
 幽幽懷懷회도 하도할샤(사) 客客愁愁수도 돌디업다  
 仙仙槎槎사를 씩워내여 斗斗牛牛우로 向向향향살가  
 仙仙人人인을 촉촉촉촉려 丹丹穴穴혈의 머므살가

「關東別曲」의 제 18 단은 竹西樓<sup>2)</sup> 아래 五十川 물이 東海로 내려감을 보고 임 계신 서울 漢江으로 둘러보내고 싶다는 생각과 멀리 서울을 떠나 지방 관원으로 있게 된 쓸쓸한 기분, 그리고 幽懷도 많고 客愁도 들데 없어 마음을 건잡을 수 없다는 心情을 죽서루 주위의 흐르는 시내와 우뚝 솟은 산으로 이루어진 風景과 관련시켜 표현하고 있다. 東海로 내려가는 물을 한강의 木窟에 닿이고 싶다는 그의 남다른 戀君의 心情을 오십천의 흐르는 물과 태백산의 그림자를 끌어들여 묘사하였고, 限 있는 王程이라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心情과 그윽한 懷抱와 나그네의 愁心만 가득찬 자신의 심정을 自然風景을 인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戀君의 心情을 ‘다다가니’(담아 가니), ‘다하고저’(대이고저) ‘幽幽懷懷회도 하도할샤(사)’(회포도 하도 많고), 그리고 ‘客客愁愁수도 돌디업다’(客愁도 들 데 없다) 등의 문장을 사용하여 싫지 않은(못슬미니) 風景과 관련시켜 보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풍경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眞珠館 竹西樓 밑 五十川 모인 물이 太白山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眞眞珠珠館 竹竹西西樓樓 五五五五十十川川 천 모든(닌)물이 太太白嶽山山 그림재를 東東海海로 다다가)는 ‘風景’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風景’이 松江에게는 싫지 않으니 오히려 懷抱도 하고 많고 客愁도 들 데 없다(幽幽懷懷회도 하도할샤(사) 客客愁愁수도 돌디업다)는 것이며, 이러한 자신의 心情을 전해보고자 하는 意圖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風(흐르는)景’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風景을 구성하는 風景構成要素는 五十川의 흐르는 물과 물에 비친 태백산의 그림자이다.

外心構造를 이루는 ‘풍경이 못슬미니’를 보면 풍경이 싫지 않다는 것이니, 현재 자신이 보고 있는 풍경을 ‘싫다’ 혹은 ‘좋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松江의 主觀的 感情이 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聖山別曲

#### 第2段

松松松松根근을 다시 끌고 竹竹竹竹床상의 자리 보와(아) 저근덧 올라안자 었던고 다시보니  
 天天邊邊의 硯硯石石을 瑞瑞瑞瑞石石을 집을사마  
 나난듯 드는양이 主主主人인과 었더호고  
 滄滄滄滄溪溪계 흰물결이 亭亭亭亭子子로 知知知知되 돌러시니  
 天天孫孫손 雲雲雲雲錦錦금을 擘擘擘擘쳐 버혀내여  
 넋넋듯 퍼티는듯 擘擘擘擘스도 擘擘擘擘스홀샤  
 山山山山中中의 冊冊冊冊歷歷년역서 四四四四時時시를 모르더니  
 눈아래 헤틴 景景이 擘擘擘擘이 절로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仙仙仙(선)間間간이라

「星山別曲」의 제 2 단은 息影亭을 드나드는 주인의 風流와 氣象을 仙境 같은 息影亭의 自然環境과 비교하여 읊은 것이다. 息影亭 周邊의 하늘가에 떠는 구름 서석대를 집을 삼아(天邊의 硯硯石石 瑞瑞石石을 집을 사마) 나가는 듯 드는 모습(나난듯 드는 양)을 이루는 景이 마치 息影亭을 드나드는 主人 金成遠의 氣象과 아울러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눈아래 펼쳐져 있는 ‘景’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하늘가에 떠는 구름이 서석대를 집을 삼아 나가는 듯 드는 모습과... 푸른 시내 흰 물결이 정자 앞을 둘러있는(天邊邊邊의 硯硯石石 瑞瑞石石을 집을 사마 나난듯 드는 양이... 滄滄滄滄溪溪계 흰 물결이 亭亭亭亭子子로 知知知知되 돌러시니), 마치 銀河水(天孫雲錦<sup>3)</sup>)가 펼쳐진 모습이다. 높이 등실등실 떠 있는 흰구름, 우뚝우뚝 서있는 깨끗한 돌(瑞石), 그리고 졸졸 흐르는 푸른 시내물(滄溪)이 시각적 景의 構成要素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내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눈아래 헤틴 景景’을 보면 ‘눈 앞에 展開된’이라 하여 눈아래 헤쳐

註 2) 關東八景의 하나로 <餘地勝覽> 三陟條에 「竹西樓在客觀 卽辰珠館 西絕壁千杖 寄巖叢列 其上架飛樓 日竹西下臨五十川 川涯爲潭 水清澈底 日光下透 遊魚歷歷可數 爲嶺東絕景」이라 함.

3) 天孫은 織女星의 一名이요, 雲錦은 구름 같은 비단이란 말이니, 織女가 짜놓은 비단, 즉 銀河水를 말함, 中國 詩人 吳兢의 詩에 ‘河漢天孫兮 瀟湘帝子游’라는 것이 있고, 蘇軾의 詩 <潮州韓文公廟碑>에 ‘天孫爲織雲錦裳 飄然乘風來旁旁’이라 하였다.

농은 혹은 전개된 視覺的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또 외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정이 철철이 질로나니’를 보면 책력조차 없으나, 눈앞의 景이 사철따라 전개되니 大自然의 景은 季節 따라 四時를 알려준다하여 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변화성 즉 시간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연논’(뒸는), ‘나 논듯 드논양’(나가는 듯하며 들어 가는 모양, 혹은 나며 들며 하는 모양), 그리고 ‘둘러시니’(둘러서 흐르고 있으니) 등의 視覺的인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철을 따라, 혹은 季節를 따라 전개되는 ‘눈아래 헤틴 景경’과 調和를 이루고 있다.

#### 短歌 52

新新羅라 八팔百백年년의 놈드록 무은 塔탑을  
千천斤근든 쇠뿔소리 티드록 울힐시고  
들 건너 寂寂寞寞山山亭亭의 暮모景경 도올썸이러

「短歌」52는 新羅의 옛 서울 慶州의 저문 暮景을 읊은 懷古詩이다. 높게 쌓은 오랜 塔(놈드록 무은 塔)과 무거운 鐘소리(천근든 쇠뿔소리)와 적막한 山亭(寂寞山亭)을 인용하여 지난날 榮華를 누리던 옛 서울 터의 지금의 쓸쓸한 모습과 잘 어울리게 그려져 있다. 오랜 塔과 무거운 鐘소리가 적막한 山亭의 어두운 무렵의 모습을 더욱 잘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는 경주의 현재의 쇠잔한 모습을 하루 중에서 해가 저가는 어두운 무렵의 모습, 즉 ‘暮景’으로 나타내고 있다.

‘八팔百백年년의’(오랜), ‘千천斤근든’(무거운), 그리고 ‘寂寂寞寞’(적막한) 등의 회고적이며, 쓸쓸한 기분을 자아내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어두운 무렵의 ‘景’, 즉 ‘暮景’과 일치를 이루게 하였다. 여기서 暮景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높게 쌓은 오랜 塔과 들 건너 적막한 山亭(놈드록 무은 塔탑) …… 들 건너 寂寂寞寞山山亭亭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무거운 鐘소리(千斤든 쇠뿔소리)라는 청각적인 요소를 이끌어와 어두운 저녁 무렵의 山亭의 적막한 景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내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들 건너 寂寂寞寞山山亭亭의 暮景’에서 ‘들 건너’는 어느 일정한 거리에서 떨어져 바라다 본, 거리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暮景’에서 ‘暮’는 어두운 무렵으로서 어느 시점의 시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新羅 八百年的 榮華가 지금은 저녁의 어두운 무렵처럼 쇠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莎堤曲

##### 第5段

花開葉落 아니면 어니節을 알리려고  
中隱巷 쇠뿔소리 谷風의 섯거너라 梅窓의 이르거든  
午睡를 ㅁ져야 病目을 여러보니  
밤비에 ㅁ핀가지 ㅁ침ㅁ을 보내어 봄철을 알외너다  
春服을 처업넙고 麗景이 더된저거  
靑藜杖 빗기귀고 童子六七 불너내야 속넙 난 잔외에  
足容重케 ㅁ트거러 淸江의 발을 섯고  
風乎江畔야 興을 타고 도라오니  
舞雩詠而歸를 저그나 부톨소나

「莎堤曲」의 제 5 단은 春興을 노래한 段이다. 세상은 은둔한 생활인지라 계절의 변화는 꽃피고 잎지는 데서 짐작하는데, 中隱庵 鐘소리가 谷風에 섞여 날라 와서 梅窓을 두드려 春困을 못이겨 자던 낮잠을 깨어 보니, 어제밤 비에 ㅁ핀 가지가 아늑한 향기를 보내어 봄이 온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창문에서 보여진 늦은 봄의 밤비에 ㅁ핀 매화를 보니 漢學者인 그는 또 論語 先進篇에 나오는 曾皙의 孔에게 말한 풍유적인 말이 문득 머리에 떠올라, 春服을 처음 입고 童子六七 불러 내어 淸江에 발을 섯고 興을 타고 돌아 오니, 舞雩臺에서 읊조리며 돌아 온 그 때를 조금이나 부러워하겠느냐 하며 재빨리 曾皙의 故事<sup>4)</sup>를 인용하였다.

여기서 麗景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은근한 향기를 보내 봄철을 알리는 밤비에 ㅁ핀 매화가 창문에서 보여진 늦은 봄의 모습인 것이다. 내심구조를 이루고 ‘麗景’에서 ‘麗(아름다운, 고운)’는 ‘밤비에 ㅁ핀가지’(밤비에 ㅁ핀 가지) 등의 視

註 4) 孔子가 그 제자인 子路, 曾皙, 再有, 公西華들에게 뜻하는 바를 물었는데 각각 政治談을 했으나, 曾皙은 ‘봄옷을 펼쳐 입고 친구와 어린이들과 함께 沂水(기수)에 목욕하고 舞雩(무우)에 올라 노래 부르고 돌아 오고 싶나이다’ 대답하매 맹자가 칭찬하였음(論語)先進集.

覺의인 측면을 포함하며, 또한 ‘暗香’(으늁한 향기)로 표현되는 嗅覺의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서 대화 편 봄의 아름다운 景, 즉 ‘麗景’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외심구조를 이루는 ‘麗景이 더딘저귀’에서 ‘더딘저귀’는 ‘더딘 때에’, 즉 ‘暮春(늦은 봄)’을 말함으로서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소리에 낮잠을 깨고 보니 늦은 봄이었다는 것을 알았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 莎提曲

## 第6段

春興이 이러커든 秋興이라 저글넌가  
金風이瑟瑟하야 庭畔에 지니부니  
머괴입 지느소리 먹는귀를 놀리느다  
正值秋風을 中心에 더욱반겨  
낙티을 둘러메고 紅蓼을 헤혀드러  
小艇을 글러노화 風帆浪楫으로 가넌티로 더더두니  
流下前灘하야 淺水邊에 오도고야  
夕陽이 거원적의 江風이 짐즉부러 歸帆을 보넌듯  
아독든 前山도 忽後山의 보이느다  
須臾羽化하야 蓮葉舟에 올라넌듯  
東坡赤壁遊 |느 돌 이내 興에 엇지더며  
張翰江東去 |느 돌 오늘 景에 미출넌가

「莎提曲」의 제 6 단은 秋興을 노래한 것이다. 가을을 맞이하고 보니 할 일은 風遊스런 낚시질인데, 바람을 돛 삼고 물결을 노 삼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대로 작은 배를 물 위에 띄워 내니, 어느덧 잠깐 사이 神仙이 되어 蓮葉舟에 오른 듯한 기분을 蘆溪는 蘇東坡<sup>5)</sup>의 赤壁遊에 비유하였으며, 술술 부는 ‘金風’(가을바람), 바람 부는대로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는 小艇(작은 배), 얇은 灘(여울), 그리고 주위의 山 등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자기 주위의 모습과 夕陽이 드리워진 오늘의 ‘景’을 李白의 張翰江東去<sup>6)</sup>란 詩句를 연사하여 강동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오늘 ‘景’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울(灘)과 그곳에서 바람을 돛 삼고, 물결을 노 삼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작은 배와 주

변의 산, 그리고 너웃너웃 저물어가는 석양(小艇을 글러 노화 風帆浪楫으로 가넌티로 더더두니 流下前灘하야 淺水邊에 오도고야 석양이 거원적의 江風이 짐즉부러 歸帆을 보넌듯 아독든 前山도 忽後山의 보이느다)으로 이루어진 모습인데, 연엽주를 탄 신선이 된 듯한(須臾羽化하야 蓮葉舟에 올라넌듯)기분을 들게 하는 모습이다.

내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오늘 景’에서 ‘오늘’은 하루 중에서도 석양무렵으로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과 같은 景은 신선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리고 江東의 경치에 비길만 한 경치인 것이다. 또 외심구조를 이루는 ‘오늘 景에 미출넌가’에서 ‘미출넌가’는 비교와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景’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獨樂堂

## 第3段

靑蘿를 헤혀드러 獨樂堂을 여러넌니  
幽閑景致는 견홀티 녀야업넌  
千竿修竹은 碧溪조차 들너잇고  
萬卷書冊은 四壁의 사혀시니  
顏曾이 在左하고 游夏는 在右호듯  
尚友千古하며 吟詠을 일을 삼아  
門中靜裏에 潛思自得하야 혼자즐겨 하시넌다  
獨樂 이일홈 稱情호줄 귀 뉘알리  
司馬溫公 獨樂園이 아무려 조타호듯  
其間眞樂이야 이獨樂에 더로손가

「獨樂堂」의 제 3 단은 독락당의 幽閑(그윽)한 景致와, 한가하고 고요한 가운데 잠겨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던 晦齋의 모습(顏曾과 游夏를 거느리고 지내던 孔子와 같은 風貌)을 읊고 있다. 옛 벗 숭상하며 吟風詠詩 일을 삼아 한가하고 고요한 사색에 잠기어 있는 회재의 모습을 푸른 시내(碧溪)를 둘러싼 千竿修竹(길게 자란 대나무), 四壁에 쌓인 萬卷書冊, 그리고 獨樂堂과 그 주위의 경치를 통해

註 5) 東坡가 赤壁江에서 <前赤壁賦>를 지음.

6) 齊王이 大司馬를 삼았더니, 가을 바람이 불 때 고향을 그리워하며 벼슬을 마다 하고, 江南의 蓴菜(순채)와 松江의 鱸魚를 하도 먹고 싶어 하여 마침내 도로 가게 함.

느끼면서 描出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치를 ‘幽閑’(그윽한) 경치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경치의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모습은 푸른 시내와 푸른 시내를 둘러싼 길게 자란 대나무, 독락당과 서재의 사벽에 쌓인 많은 서책들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외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幽閑景致는 견훤더 너야업니’에서 ‘견줄 데 전혀 없네(견훤더 너야업니)’는 비교의 개념으로 司馬溫公의 獨樂園(司馬溫公 獨樂園이 아부려 조타흔돌 其間眞樂이야 이 獨樂에 더로손가)과 비교하였으며, 이것은 鄭松江이 「關東別曲」에서 金剛山の 進眞목을 廬山에 비김과 같은 것이다. 내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幽閑景致’에서 ‘幽閑(그윽한)’은 천고 옛 벗 숭상하며 음풍영시 일을 삼가 한가하고 고요한 데 사색에 잠기어서 혼자 즐겨 한신(尙友千古하며 음영을 일을 삼아 閒中靜裏에 潛思自得해야 혼자즐겨 하시دت) 회제의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修飾語이다.

#### 獨樂堂

##### 第6段

春服을 시로입고 詠歸臺에 올라오니  
麗景은 古今업서 淸興이 절로하니  
風乎詠而歸를 오늘다시 본듯하다  
臺下蓮塘의 細雨잠썌 지니가니  
碧玉又흔 너분넙해 흐치니니 明珠로다  
이러흔 淸景을 보암죽도 하다마는  
濂溪 가신後에 몇몇히를 디닌게오  
依舊淸香이 다문혼자 남아고야  
紫烟이 빗긴아래 瀑布를 멀리보니  
丹崖 노푼긋히 긴니히 걸려는듯  
香爐峰 귀어더오 廬山이 예뵈던가  
澄心臺 구어보니 鄙吝뎡 腦襟이 새로운듯 하다마는  
寂寞空臺에 외로이 안자시니  
風風淸鏡面의 山影만 잠겨있고  
綠樹陰中에 윈갓시 슬피운다  
徘徊思憶하며 眞跡을 다차즈니  
濯纓臺 淵泉은 古今업시 말다마는

末路紅塵에 사름마다 紛競커든  
이리조흔 淸潭에 濯纓홀출 귀뉘알리

「獨樂堂」의 제 6 단은 회제선생의 높은 德과 俗人들을 개탄하고 있으며, 詠歸臺의 아름다움과 자연 비긴 폭포며, 澄心臺, 濯纓臺의 景物을 노래하고 있다. 本段에서는 詠歸臺에 올라서는 「論語」先進篇에서 孔子와 問答하던 曾點의 古事<sup>7)</sup>—風乎詠而歸를 생각하고, 영귀대 밑의 蓮塘을 보고는 愛蓮說로 유명한 周濂溪<sup>8)</sup>를 연상하였으며, 폭포를 바라보고는 李白의 시에도 나타난 廬山瀑布<sup>9)</sup>를 비교하고 있다. 澄心臺를 굽어 보니 鄙吝뎡 腦襟이 새로운 듯하다하고, 또한 濯纓臺 淵泉을 보고서는 작자는 저 屈原의 漁父辭<sup>10)</sup>가 연상된 듯, 그의 심경과도 같이 紅塵名利에 초연하던 晦齋先生의 높은 덕을 새삼 느끼고, 末世紅塵에서 부귀공명을 어지럽게 다투는 俗人들을 보고 慨歎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러흔 淸景’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앞문장에서 나타나는 영귀대 밑의 연당과 그곳에 있는 넓은 연잎으로 이루어진 (臺下蓮塘의 細雨잠썌 지니가니 碧玉又흔 너분넙해 흐치니니 明珠로다) 모습이다. 노계는 영귀대 밑의 연당과 비 지나가고 난 뒤의 碧玉같은 넓은 연잎과 蓮잎 위의 맑은 구슬 같이 맺혀 있는 물방울을 보고는 晦齋선생의 높은 德에 비유하여 ‘淸景’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 이외에도 ‘淸興’, ‘淸香’, ‘風淸鏡面’, ‘濯纓臺 淵泉은 古今업시 말다마는’, ‘淸潭’, 그리고 ‘濯纓’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회제선생의 높은 덕을 자연의 맑고, 깨끗한 物景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외심구조를 이루는 ‘麗景은 古今업서 淸興이 절로하니’는 아름다운 景(麗景)은 항상 맑은 興(淸興; 바람을 쇄고 읊조리며 돌아옴)을 돋운다는 것으로 ‘麗(아름다움)’와 ‘淸(맑은)’을 서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서의 麗景은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麗景’은 영귀대에 올라가 쓸쓸한 빈 대에 외롭게 앉아 본(詠

註 7) <論語>先進篇에 「…日莫春者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 하였다.

8) 周敦頤는 湖南省 永州府 道州에 있는 시내 濂溪에서 살다 蓮꽃을 사랑하고 「愛蓮說」을 지음.

9) 李白의 廬山瀑布詩에서 「日照香爐生紫煙 遙看瀑布掛長天 飛流直下三千尺」.

10) 屈原의 漁父辭, 또는 <孟子>離婁에 「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歸臺에 올라오니 麗景은...瀑布를 멀리보니...  
澄心臺 구어보니...風清景面의) 것으로, 영귀대  
에서 내려다 보이는 瀑布, 澄心臺, 산그림자가 비  
치는 거울 같은 맑은 연못(濯纓臺 淵泉)으로 이루어  
어진 모습이다.

## 獨樂堂

## 第7段

獅子巖 노피올라 道德山을 바라보니  
玉蘊含輝는 어제론덧 ㅎ다마는  
鳳去山空하니 杜鵑만 나죄운다  
桃花洞 ㄴ린물리 不捨晝夜하야 落花조차 흘러오니  
天台인가 武陵이다 이싸히 어틴게오  
仙蹤이 아득하니 아모딘줄 모로르다  
仁者도 아닌몸이 모슴理를 알리마는  
樂山忘歸하야 奇巖을 다시비겨  
川原遠近에 景致를 살펴보니  
萬紫千紅은 비단받치 되여있고  
衆卉群芳은 谷風에 놀려오고  
山寺鍾聲은 구름받기 들리놀다  
이러흔 形勝을 范希文의 文筆인들 다서니기 쉬운  
넌가  
滿眼風景이 客興을 도오논듯  
任意 逍遙하며 짐즉더디 도라오니  
舉目西峯의 夕陽이 거의로다

「獨樂堂」의 제 7 단은 회제선생의 德과 獅子巖에  
서 道德山을 바라보는 仙境, 寄岩을 비겨 본 川原  
의 遠近景致를 읊고 있다. 여기서 경치의 구체적이  
며, 실제적인 모습은 비단수를 놓은 것같은 천만  
가지 각색 꽃으로 펼쳐져 있는 멀고 가까운 시내  
벌의 모습이다. 그리고 外心構造를 이루고 있는  
'遠近에 景致를 살펴보니'에서 '원근에...살펴보  
니'라 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자체를 말하  
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외심구조를 이루는 '滿

眼風景이 客興을 도오논듯'(눈에 찬 風景이 客興을  
도우는 듯)이라 하여 視覺性과 아울러 나그네의 흥  
취로 나타나는 감정표출을 강조하고 있다. 또 '花  
草에서 풍겨나오는 香氣(衆卉群芳)'와 '山寺의 종  
소리(山寺鍾聲)'로 風景을 嗅覺, 聽覺에 呼訴하고  
있다. 그리고 '산사의 종소리(山寺鍾聲은 구름받  
기 들리놀다)'와 서산을 넘어가는 석양(舉目西峯  
의 夕陽이 거의로다)이 시각적인 측면과 청각적인  
측면이 조화되게 그려놓고 있다.

회제선생의 遺德을 自然景物에서 날날이 되살려  
느끼고 있는 노계는, 道德山을 보고 회제선생의 도  
덕의 구슬이 쌓여 빛을 먹음고 있는 듯한 것이라고  
推仰하였으며, 또 이백의 「登金陵鳳凰臺」詩<sup>11)</sup>를  
빌어서 회제선생을 鳳에 비겼는데, 이미 선생은 가  
고 없으므로, "鳳去山空하니 杜鵑만 나죄운다"고  
쓸쓸한 기분을 느낀 듯하다. 그리고 선생의 자취를  
역시 중국의 天台山<sup>12)</sup>이나 武陵桃源<sup>13)</sup>에 비겨 신선  
의 자취라 하여 신선으로 받들면서, 석양이 비칠  
무렵까지도 산을 즐겨 돌아 갈 줄 모르는<sup>14)</sup> 노계는  
獅子巖 일대의 자연과 시냇벌 遠近의 아름다운 景  
致를 잘 관찰하여, 漢字熟語를 인용하여 그 경치를  
여실히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自然景物과 돌아  
간 회제선생과 작자 자신이 三者一體의 佳境에 가  
지 이른 것을 맛볼 수 있다.

## 獨樂堂

## 第9-10段

求仁堂 도라올라 體仁廟도 嚴肅홀샤  
千秋血食이 偶然아닌 일이로다  
追崇尊敬을 홀소록 못니하야  
文廟從후이 거더욱 盛事로다  
吾東方 文憲이 漢唐宋에 비기로되  
紫陽 雲谷도 어즈버 여커로다  
洗心臺 ㄴ린물에 德澤이 이어흘러  
龍湫 감흔곳에 神物조차 줌겨서니  
天工造化 | 거더욱 奇異코야

註 11) 李白的 燈金陵鳳凰臺詩에 「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라 있음.

12) 中國의 浙江省에 있는 산, 飛仙들이 거처한 곳이라 함. 漢나라 劉晨(유신), 阮肇(원조)들이 나물 캐러 가서 女子를 만나 살  
다가 半年후에 집에 돌아 가니 七代나 지냈다한다(辭源).

13) 中國 湖南省에 있는 仙境, 陶潛의 桃花源記에 故事가 나타난.

14) <論語> 雍也篇에 「智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라 있음.

외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白嶽巖紅蓼蓼요는  
곳마다 景경이로다”에서 ‘곳마다’는 강가를 지칭  
하는 것으로 장소개념을 의미한다.

#### 漁父四時詞

##### 冬詞(四)

간밤에 눈갠後에 景경物물이 달랠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萬頃경琉璃玉璃리 뒤희는 千仞疊疊 玉옥

山산

至지窈窕處處 至지窈窕處處 於어思思臥와

仙仙界界계계가 佛佛界界계계가 人人間間간이 아니로다

「漁父四時詞」의 冬詞(四)는 눈이 개인 뒤의 바  
다 부근의 神仙界 같은 아름다운 景物을 노래함이다.  
전체의 노래는 눈 개인 뒤의 변한 아름다운 바  
다 근처의 넓고 넓은 琉璃같은 거울바다와 千層으  
로 싸인 玉 같은 山의 景物을 읊었다. 여기서 景物  
은 “압희는 萬頃琉璃<sup>17)</sup>와 “뒤희는 千疊玉山”의 對  
句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景物로 이루어진 경  
치는 인간이 세계라기 보다는 신선이 노는 세계인  
것 같다고 했다. 겨울도 깊어 가니 고기잡이 세월  
은 별로 신기한 것이 없는 듯, 이보다는 자연의 景  
物에 도취한 것이다. 그래서 “仙界가 佛界가”  
라고 感歎詞를 발하였다.

외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간밤의 눈갠後에 景경  
物물이 달랠고야”에서 ‘간밤의 눈갠後에’는 지난  
밤에 눈이 왔다는 것과 현재는 눈이 개인 뒤라는  
시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달랠고야’는  
‘달랠구나’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보는 사  
람의 시각에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景物은 시간과 사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는 변화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은 ‘눈’  
이 왔다는 것이며, 눈이 오기 전과 눈이 온 후의 변  
화된 모습은 인간세계에서 신선의 세계로 변화된  
모습과 비유될 수 있다.

## VI. 分析의 結果

詩歌作品中에서 나타난 思想, 작품의 內容, 그리고  
景觀用語의 사용을 정리해보면 [表 7]과 같으며,  
개념과의 관련성은 [表 8]과 같다. 松江은 「關東別  
曲」에서 자신의 戀君의 심정을 노래한 제 18 단에  
서는 시간적으로는 저녁별에 흐르는 五十千의 물  
과 太白山의 그림자를 끌어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風景’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星山別曲」에서  
주인의 기상과 風流를 노래한 제 2 단에서는 主人  
의 기상과 풍류를 서석대를 감싸고 있는 구름과 정  
자 앞을 둘러있는 흰 물결의 푸른 시내를 끌어들이  
는 앞에 펼쳐진 시각에 호소하는 ‘景’으로 묘사하  
고 있으며, 그리고 「短歌」52에서는 옛 경주의 쓸  
쓸한 모습을 시간적으로는 어두운 무렵에 오래된  
塔, 무거운 종소리, 그리고 적막한 산정 등을 끌어  
들이 쓸쓸한 모습을 ‘暮景’으로 묘사하고 있다.

蘆溪는 「莎堤曲」에서 春興을 노래한 제 5 단에서  
는 봄의 興을 시간적으로는 늦은 봄에 갖핀 매화의  
시각적인 면을 보여주는 꽃과 후각적인 면을 보여  
주는 향기를 끌어들이 아름다운 봄의 모습을 ‘麗  
景’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秋興을 노래한 제 6 단에  
서는 가을의 興을 시간적으로는 석양이 된 때에 시  
각적인 면을 산, 작은배, 여울 등을 끌어들이 ‘景’  
으로 묘사하고 있다. 「獨樂堂」에서 晦齊의 모습을  
노래한 제 3 단에서는 푸른 담장이던굴, 대나무, 시  
내, 獨樂堂 안의 서책 등을 끌어들이 회제선생의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각적인 면을  
‘景致’로 묘사하고 있으며, 제 6 단에서는 시간적으  
로는 봄을, 상황은 비가 온 뒤에, 연귀대 밑의 깨끗  
한 연당과 깨끗한 연잎을 끌어들이 회제선생의 높  
은 德을 ‘清景’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영귀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폭포, 澄心臺, 그리고 산의 그림자  
가 비치는 연못 등의 시각적인 면을 끌어들이 ‘麗  
景’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회제선생의 幽德을 내용  
으로 하고 있는 제 7 단에서는 시간적으로는 석양  
무렵으로 千萬 가지 각색 꽃으로 펼쳐져 있는 멀고  
가까운 시내 벌의 모습을 ‘景致’로 묘사하고 있으

註 17) 一頃은 四方의 面積는 바다를 이에 비유함. <異聞錄>에 「開元中 明皇與申天師 洪都客夜遊月中 下視王城嵯峨 若萬頃琉璃田  
翠色冷光 相射炫目」이라 하였고, 杜甫의 <漢陂行>에 「波濤萬頃惟琉璃」, 范純仁 詩에 「萬頃琉璃咸足翠麟」 등이 있음.

[表-7] 作品의 內容과 景觀 關聯 用語와의 關係

|    |                | 景觀<br>概念語 | 感覺       | 作品의 內容                 | 時間             | 景觀構成要素                   |
|----|----------------|-----------|----------|------------------------|----------------|--------------------------|
| 松江 | 關東別曲<br>(18段)  | 風景        | 視覺       | 戀君의 情                  | 저녁별            | 樓, 太白山, 五十川              |
|    | 星山別曲<br>(2段)   | 景         | 視覺       | 風流와  기상                |                | 구름, 서석대,<br>시내(흰물결)      |
|    | 短歌 52          | 暮景        | 聽覺<br>視覺 | 옛 慶州의 쓸쓸한 모습           | 어두운<br>무렵      | 산정, 탑, 종소리               |
| 蘆溪 | 莎提曲<br>(5段)    | 麗景        | 嗅覺<br>視覺 | 春興                     | 늦은봄            | 갯편가지(꽃)                  |
|    | 莎提曲<br>(6段)    | 景         | 視覺       | 秋興                     | 가을<br>석양       | 산, 작은배, 여울               |
|    | 獨樂堂<br>(3段)    | 景致        | 視覺       | 晦齊의 모습                 |                | 대나무, 푸른담장이딩굴,<br>시내, 독락당 |
|    | 獨樂堂<br>(6段)    | 麗景,<br>清景 | 視覺       | 晦齊先生의 높은 德과<br>俗人들의 慨歎 | 봄<br>비온뒤<br>석양 | 영귀대, 연당,<br>가는비, 연잎      |
|    | 獨樂堂<br>(7段)    | 景致,<br>風景 | 視覺<br>聽覺 | 晦齊先生의 幽德               |                | 시내별, 꽃, 풀, 종소리           |
|    | 獨樂堂<br>(9-10段) | 眞景        | 嗅覺<br>視覺 | 晦齊先生의 學德               |                | 세심대, 용추,                 |
|    | 蘆溪歌<br>(5段)    | 清覺        | 視覺       | 幽幽自適하는 作者의             | 봄날             | 물, 하늘, 새                 |
|    | 蘆溪歌<br>(6段)    | 佳景        | 視覺       | 自樂하는 作者의 기분            | 봄<br>꽃시절       | 꽃, 수양버들                  |
| 孤山 | 漁父四時詞<br>(秋詞)  | 景         | 視覺       | 돛을 달고 떠날려는<br>場面       | 가을             | 흰구름, 나무, 호, 꽃            |
|    | 漁父四時詞<br>(冬詞)  | 景物        | 視覺       | 눈개인 뒤의 바다<br>부근의 모습    | 겨울<br>눈은뒤      | 바다, 산                    |

며, 멀고 가까움의 距離感과 視覺의인 側面을 끌어 들였으며, 그리고 꽃향기와 山寺의 종소리의 후각 과 청각적인 측면도 각각 끌어들이 시각적인 측면 의 경치를 보충해주고 있으며, 또 제 9-10 단은 회 제선생의 學德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시각적인 면을 세심대와 용추를 끌어들이었으며, 神仙思想과 같은 사상적인 면을 더욱 강조시키기 위하여 ‘眞景’으로 묘사하고 있다. 「蘆溪歌」에서 幽幽自適하 는 蘆溪의 閑興을 노래한 제 5 단에서는 시간적으 로는 봄날 비개뒤로 벽수, 장천, 그리고 노는 갈매 기의 시각적인 측면을 끌어들이었고, 수면과 하늘의 깨끗한 모습을 ‘清景’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自樂하 는 蘆溪의 기분을 노래한 제 6 단에서는 시간적으 로는 봄의 꽃시절로서 꽃이 핀 암반과 시냇가의 수

양버들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佳景’ 으로 묘사하고 있다.

孤山은 「漁父四時詞」에서 돛을 달고 떠날려는 장면을 보여주는 秋詞의 제 3 단에서는 시간적으로 는 가을로서 흰구름, 나무, 호수, 그리고 꽃들과 함 께 바람을 끌어들이 시각적인 측면을 나타내었고, 일반적인 장소의 모습을 ‘景’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눈개인 뒤의 바다 부근의 모습을 담고 있는 冬詞의 제 4 단에서는 시간적으로는 겨울의 눈은 뒤로 시 각적으로 변화된 모습의 바다와 산을 ‘景物’로 묘 사하고 있다.

[表-8] 景觀 關聯 用語와 概念과의 關係性

|       | 景 | 風景 | 暮景 | 麗景 | 清景 | 眞景 | 佳景 | 景致 | 景物 |
|-------|---|----|----|----|----|----|----|----|----|
| 空間概念  |   |    |    |    |    |    |    |    |    |
| 物的概念  |   |    |    |    |    |    |    |    |    |
| 自然概念  |   |    |    |    |    |    |    |    |    |
| 生物 概念 |   |    |    | 0  | 0  |    | 0  | 0  |    |
| 無生物概念 | 0 | 0  | 0  |    | 0  | 0  | 0  |    | 0  |
| 人工概念  |   |    | 0  |    |    |    |    | 0  |    |
| 場所概念  | 0 |    |    |    |    |    |    |    |    |
| 關係概念  | 0 |    |    | 0  |    |    |    | 0  | 0  |
| 數量概念  |   |    |    |    |    |    |    |    |    |
| 基數概念  |   |    |    |    |    |    |    |    |    |
| 序數概念  |   |    |    |    |    |    |    |    |    |
| 時間概念  |   |    |    |    |    |    |    |    |    |
| 動的概念  | 0 | 0  |    |    |    |    |    |    |    |
| 靜的概念  | 0 | 0  | 0  | 0  |    |    | 0  |    |    |
| 質的概念  |   |    |    |    |    |    |    |    |    |
| 價値概念  |   |    |    |    |    | 0  |    |    |    |
| 主觀概念  |   | 0  |    |    |    | 0  |    |    |    |
| 客觀概念  |   |    |    |    |    |    |    |    | 0  |
| 心理概念  |   |    |    |    |    |    |    |    |    |
| 美的概念  |   |    |    | 0  |    |    | 0  |    |    |
| 認識概念  |   | 0  | 0  |    | 0  |    |    | 0  |    |
| 知覺概念  |   |    |    |    |    |    |    |    |    |
| 感覺概念  |   |    |    |    |    |    |    |    |    |
| 視覺概念  | 0 | 0  | 0  | 0  | 0  | 0  | 0  | 0  |    |
| 聽覺概念  |   | 0  |    |    |    |    |    |    |    |
| 嗅覺概念  |   | 0  |    | 0  |    |    |    |    |    |

VII. 結 論

李朝詩歌를 대표할 수 있는 松江 鄭澈, 蘆溪 朴仁老, 그리고 孤山 尹善道の 작품에서 선조들의 景觀概念語 사용과 표현은 자기 자신의 感情, 時間, 空間(場所와 事物), 그리고 用語, 이 4 가지의 一致를 통해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당시의 모습과 심정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景觀構成物을 통해 적절한 景觀修飾用語와 感覺語를 이끌어 와서 表現하고 있다.

인간에게 보여지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모든 景觀의 屬性을 대표하는 용어로는 ‘景’으로 사용하였으며 시각적으로 관찰되어진 객관적 물체 혹은 사물들이 觀察者에 의해 인식된 경험에 의하여 이미

지화 시킨 것으로 感情(예들들면 戀君의 심정 혹은 賢人에 대한 思慕의 情)과 같은 인간의 內面的 葛藤이 개제되면 ‘風景’으로 사용하였으며 특정한 時間性, 예를 들면 저녁별, 어두운 무렵, 혹은 석양임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면 ‘暮景’ 혹은 ‘風景’으로 사용하였고, 아침 혹은 비가 개인 뒤의 깨끗함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清景’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꽃이 핀 모습의 아름다운 美的인 面이 개제되면 ‘麗景’ 혹은 ‘佳景’으로 사용하였고, 비유의 의미 예를들면 청령결백과 높은 덕 그리고 俗人들에 대한 慨歎을 표현하고자 하였을 때는 ‘清景’을 사용하였고, 사상과 같은 그 시대의 문화적 측면, 예를 들면 神仙思想을 표현할 때는 ‘眞景’으로 표현하였다.

시각으로 감지된 자연물 중에서 변화성이 장시간이거나 혹은 거의 변화가 없어 변화성을 감지조차 쉽게 할 수 없는 自然物과 같은 客觀的인 事物(예들들면 바다와 山)들을 ‘景物’로 사용하였으며, 景物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자연현상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눈, 비, 바람, 태양의 이동, 그리고 피고 지는 꽃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며, 이러한 요소가 그 모습을 달리함에 따라 보는 사람의 시각에 느껴지는 감정도 다르게 되며,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고자 修飾語의 사용도 달라지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옛 先祖들은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무한한 대자연의 유구함에서 위안받으려 하기도 하고, 나약한 인간의 힘을 雄渾宏大한 氣像에서 雄略과 大才로 터득하는 지혜를 배우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景觀概念語를 사용할 때에는 자신의 現在의 感情, 作品의 內容, 景觀을 이루는 場所와 景觀構成物, 그리고 적절한 時間과 상황에 맞는 修飾語를 사용하고 있다.

引用文獻

1. 金甲起(1985) “松江의 文學思想”, 李丙疇, 松江. 孤山文學論, 二友出版社.
2. 金鳳柱(1988) 概念學: 意味論의 基礎, 翰信文化社: 1.

3. 金錫夏(1973) 韓國文學의 樂園思想研究, 서울, 日新社: 5-17.
4. 金英大(1987) “設計過程에 있어서 概念의 形成에 關하여”, 嶺南大 環境研究6(2), 121-134.
5. 金輝榮(1984) “象徴으로 본 韓國 佛敎寺刹의 景觀構成에 關한 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論文.
6. 文永午(1985) “孤山文學論”, 李丙疇, 松江, 孤山文學論, 二友出版社.
7. 朴石熙(1989) 新觀光資源論, 明寶文化社: 98-116.
8. 朴晝義(1985) 松江 蘆溪 孤山の 詩歌文學, 玄岩社.
9. 朴鍾和(1977) “丹陽八景의 景觀構造分析”, 淸州大學論文集 10: 321-334.
10. 孫八洲(1985) “松江의 嗜好”, 李丙疇, 松江, 孤山文學論, 二友出版社.
11. 安永壽延(1971) 日本のユートピア思想,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12.
12. 安秉台(1985) “松江文學에 나타난 自然觀”, 李丙疇, 松江, 孤山文學論, 二友出版社.
13. 梁銃在(1984) “視覺構成論에 의한 都市景觀의 解釋理論 및 技法”, 서울大 環境論叢 15卷: 108-123.
14. 兪炳林(1977) “景觀의 解釋에 關한 研究(1)”, 서울大 環境論叢 4(1): 50-55.
15. 李敏弘(1987) 士林派 文學의 研究, 螢雪出版社.
16. 李丙疇(1985) “鄭松江論”, 李丙疇, 松江, 孤山文學論, 二友出版社.
17. 李相寶(1980) 蘆溪詩歌研究, 二友出版社.
18. 李崇寧, 金碩柱(1976) 國語大辭典, 東亞出版社.
19. 李順赫(1976) “韓國農村景觀의 視覺分析 및 改善方案”,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 林基中(1985) “松江의 生涯”, 李丙疇, 松江, 孤山文學論, 二友出版社.
21. 任勝彬(1988) “景觀分析 및 平價方法에 關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16(1): 43-51.
22. 張三植(1981)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23. 丁益燮(1985) “星山歌壇과 松江”, 李丙疇, 松江, 孤山文學論, 二友出版社.
24. 陳英煥(1980) “歷史景觀의 再構成에 關한 研究”, 서울大 環境研究 4: 375-420.
25. 崔康賢(1982)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47-48.
26. 崔杞秀(1989) “現代 景觀 意味에서 照明해 본 韓國의 傳統景觀”, 韓國造景學會誌 17(2): 57-68.
27. 崔載浩(1985) “孤山の ‘漁父四時詞’ 考究”, 李丙疇, 松江, 孤山文學論, 二友出版社.
28. 黃琪源(1989) “景觀의 多樣性에 關한 考察”, 韓國造景學會誌 17(1): 55-68.
29. Carroll, J. B. (1964a) Language and Thought,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30. Roget, P. (1959) Thesaurus of English Words and Phrases, London: Dent & Sons.